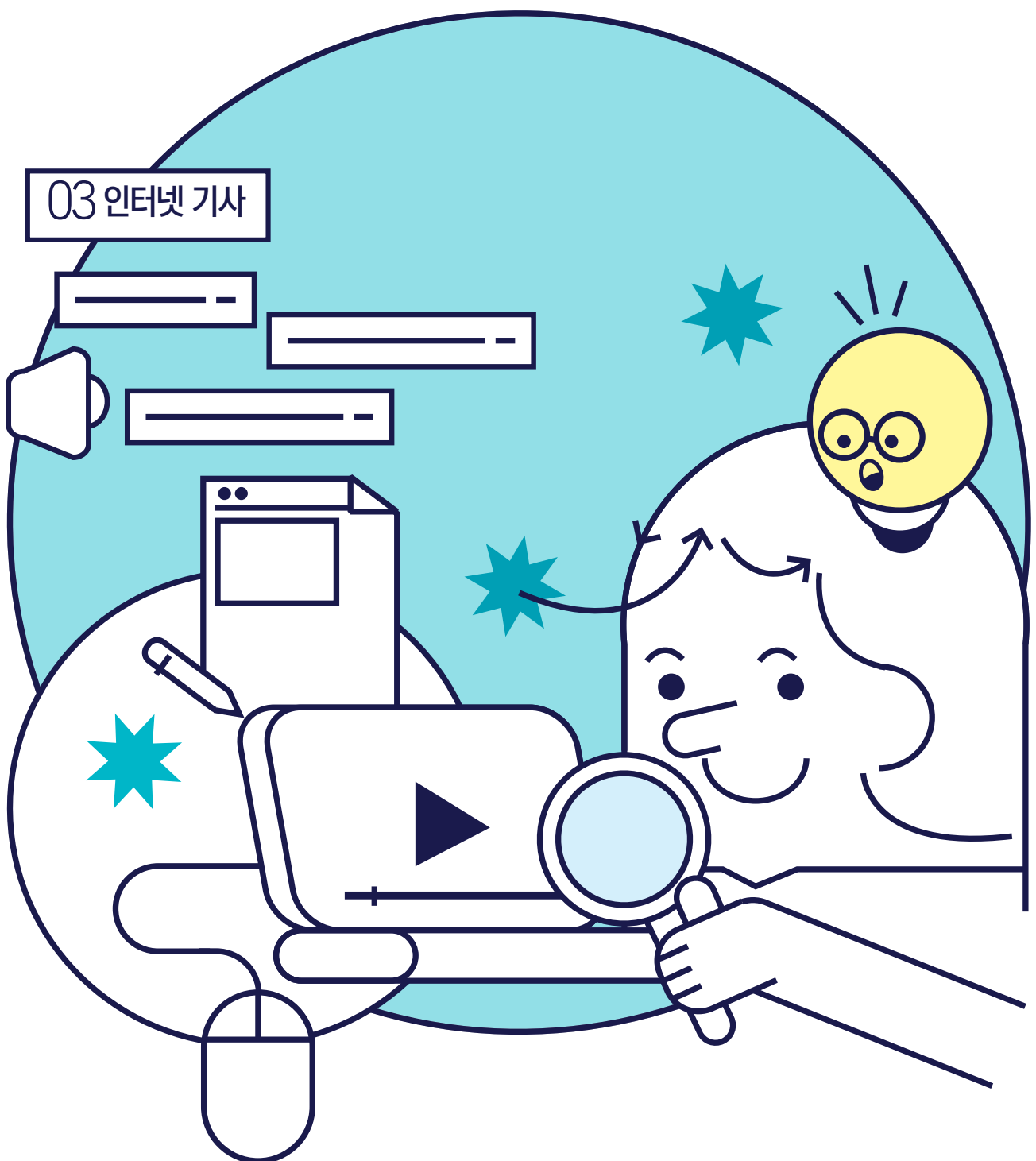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 CONTENTS

|    |                |
|----|----------------|
| 06 | 들어가며           |
| 07 | 결과분석           |
| 07 | 양적분석           |
| 10 | 질적분석 : 성평등한 사례 |
| 12 | 질적분석 : 성차별적 사례 |
| 24 | 나가며            |
| 27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 인터넷 기사 내용분석 보고서

20. 06. 10 - 06. 16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모니터링 대상

48개 매체

네이버 뉴스스탠드 내 48개 매체의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기사 대상  
외국어 기사를 제공하는 3개 언론사는 제외

| 연번 | 매체     | 연번 | 매체     | 연번 | 매체     |
|----|--------|----|--------|----|--------|
| 1  | 경향신문   | 17 | 서울신문   | 33 | 중앙일보   |
| 2  | 국민일보   | 18 | 세계일보   | 34 | 지디넷코리아 |
| 3  | 노컷뉴스   | 19 | 스포츠동아  | 35 | 코리아헤럴드 |
| 4  | 뉴데일리   | 20 | 스포츠서울  | 36 | 파이낸셜뉴스 |
| 5  | 뉴스타파   | 21 | 스포츠조선  | 37 | 프레시안   |
| 6  | 뉴시스    | 22 | 스포탈코리아 | 38 | 한겨레    |
| 7  | 데일리안   | 23 | 시사인    | 39 | 한국경제   |
| 8  | 동아일보   | 24 | 아시아경제  | 40 | 한국일보   |
| 9  | 디지털타임스 | 25 | 아이뉴스24 | 41 | 헤럴드경제  |
| 10 | 마이데일리  | 26 | 연합뉴스TV | 42 | JTBC   |
| 11 | 매일경제   | 27 | 오마이뉴스  | 43 | KBS    |
| 12 | 머니투데이  | 28 | 이데일리   | 44 | MBC    |
| 13 | 문화일보   | 29 | 일간스포츠  | 45 | MBN    |
| 14 | 미디어오늘  | 30 | 전자신문   | 46 | OSEN   |
| 15 | 블로터    | 31 | 조선비즈   | 47 | SBS    |
| 16 | 서울경제   | 32 | 조선일보   | 48 | YTN    |



성차별적 사례

227건



성평등적 사례

6건

인터넷 기사 성차별적 내용 순위

- 1위

성적 대상화

102건 / 44.9%

▲
- 2위

외모에 대한 평가

60건 / 26.9%
- 3위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30건 / 13.2%
- 4위

기타

30건 / 12.8%
- 5위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5건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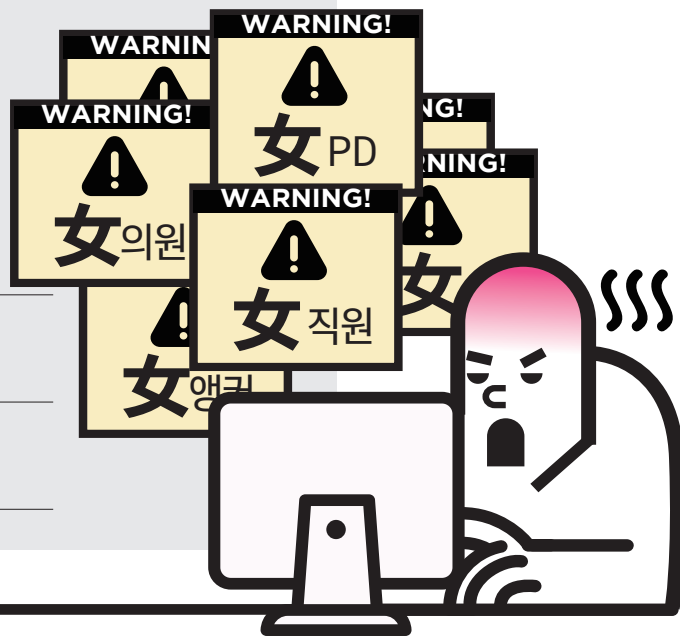
25건

여00, 00녀 등, 여성을 한정하는  
성차별적 접두사 女(여)를 사용한 사례

[World Now] 도지사 된 女앵커  
과거 어떻게래?...폭로 책 인기 폭발  
MBC 뉴스 | 6월 15일

김제시의원, 동료 의원과 불륜 인정..  
"女의원 남편에 사퇴 압박"  
이데일리 | 6월 15일

검찰 8급 여직원의 '300억 뒤통수'  
...동료들은 치 떨었다  
중앙일보 | 6월 13일



# 01 들어가며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단은 인터넷 기사의 성평등, 성차별 사례 분석을 위해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 언론사 48개 매체를 모니터링 하였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언론사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외국어 기사를 제공하는 3개 언론사는 제외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 02 결과분석

## 1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6건, 성차별적 내용은 227건으로 성차별 기사가 성평등 기사보다 월등히 많았다. 성차별 기사에는 성적 대상화(102건, 44.9%) 기사가 가장 많았고, 외모에 대한 평가(61건, 26.9%),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30건, 13.2%)이 그 뒤를 이었다.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 구분         |                                  | 건수          | 구분         |                     | 건수             |
|------------|----------------------------------|-------------|------------|---------------------|----------------|
|            |                                  | 2020년       |            |                     | 2020년          |
| 성평등적<br>내용 | 주체성<br>현실반영성<br>다양성/대안성을<br>중심으로 | 6           | 성차별적<br>내용 |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 5<br>(2.2%)    |
|            |                                  |             |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30<br>(13.2%)  |
|            |                                  |             |            | 외모에 대한 평가           | 60<br>(26.9%)  |
|            |                                  |             |            | 성적 대상화              | 102<br>(44.9%) |
|            |                                  |             |            | 기타                  | 30<br>(12.8%)  |
| 합계         |                                  | 6<br>(100%) | 합계         |                     | 227<br>(100%)  |

1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2018,  
한국기자협회·여성가족부) 및  
서울YWCA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보도 모니터링 지표 참고

## 2 매체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매체별로는 미디어오늘의 성평등 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고(3건),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KBS에서 각 1건씩 발견하였다. 성차별적 내용은 스포츠서울이 가장 많았고(36건, 15.8%), 일간스포츠(34건, 10.5%), 스포츠동아(28건, 12.3%)가 뒤를 이었다. 성차별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3개의 언론사 모두 스포츠 연예 전문 매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체 스포츠 연예 언론사에서 발견된 성차별 사례는 총 145건(전체 성차별 사례 중 63.8%)이었고, 145건 중 성적대상화 사례는 80건이었다. 2019년 모니터링에서도 성차별 보도 수가 가장 많은 상위 매체는 스포츠 연예 언론사였고, 스포츠 연예 언론사 속 성적 대상화 사례는 24건으로 전체 성차별 사례의 53%였다. 해당 사례가 모두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적 대상화 사례였다는 점은 스포츠 연예 언론사가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전시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체별 성평등 보도 사례 수  
단위 / 건

| 연번 | 매체    | 성평등 사례 수 |
|----|-------|----------|
| 1  | 경향신문  | 1        |
| 14 | 미디어오늘 | 3        |
| 27 | 오마이뉴스 | 1        |
| 43 | KBS   | 1        |
| 합계 |       | 6        |

매체별 성차별적 보도 사례 수  
단위 / 건

| 연번 | 매체명    | 사례 수 |                     |    |
|----|--------|------|---------------------|----|
|    |        | 성차별  | 성차별 사례 분류           |    |
| 2  | 국민일보   | 1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1  |
| 3  | 노컷뉴스   | 2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1  |
|    |        |      | 기타                  | 1  |
| 4  | 뉴데일리   | 1    | 성적 대상화              | 1  |
| 6  | 뉴시스    | 2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2  |
| 8  | 동아일보   | 3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2  |
|    |        |      | 성적 대상화              | 1  |
| 9  | 디지털타임스 | 2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1  |
|    |        |      | 기타                  | 1  |
| 10 | 마이데일리  | 21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1  |
|    |        |      | 외모 평가               | 14 |
|    |        |      | 성적 대상화              | 4  |
|    |        |      | 기타                  | 2  |
| 11 | 매일경제   | 9    |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 1  |
|    |        |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1  |
|    |        |      | 외모 평가               | 2  |
|    |        |      | 성적 대상화              | 5  |
| 12 | 머니투데이  | 2    | 성적 대상화              | 1  |
|    |        |      | 기타                  | 1  |
| 13 | 문화일보   | 2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1  |
|    |        |      | 기타                  | 1  |
| 17 | 서울신문   | 10   | 외모 평가               | 1  |
|    |        |      | 성적 대상화              | 8  |
|    |        |      | 기타                  | 1  |
| 18 | 세계일보   | 4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2  |
|    |        |      | 외모 평가               | 1  |
|    |        |      | 성적 대상화              | 1  |
| 19 | 스포츠동아  | 28   |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 1  |
|    |        |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1  |
|    |        |      | 외모 평가               | 11 |
|    |        |      | 성적 대상화              | 13 |
|    |        |      | 기타                  | 2  |
| 20 | 스포츠서울  | 36   |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 2  |
|    |        |      | 외모 평가               | 6  |
|    |        |      | 성적 대상화              | 26 |
|    |        |      | 기타                  | 2  |
| 21 | 스포츠조선  | 9    | 외모 평가               | 4  |
|    |        |      | 성적 대상화              | 5  |
| 22 | 스포탈코리아 | 8    | 외모 평가               | 1  |
|    |        |      | 성적 대상화              | 7  |

| 연번 | 매체명    | 성차별 | 사례 수                |    |
|----|--------|-----|---------------------|----|
|    |        |     | 성차별 사례 분류           |    |
| 24 | 아시아경제  | 3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2  |
|    |        |     | 기타                  | 1  |
| 28 | 이데일리   | 7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1  |
|    |        |     | 외모 평가               | 2  |
|    |        |     | 성적 대상화              | 3  |
|    |        |     | 기타                  | 1  |
| 29 | 일간스포츠  | 34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2  |
|    |        |     | 외모 평가               | 6  |
|    |        |     | 성적 대상화              | 25 |
|    |        |     | 기타                  | 1  |
| 32 | 조선일보   | 1   | 기타                  | 1  |
| 33 | 중앙일보   | 7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4  |
|    |        |     | 기타                  | 3  |
| 36 | 파이낸셜뉴스 | 7   | 외모 평가               | 2  |
|    |        |     | 기타                  | 5  |
| 39 | 한국경제   | 7   |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 1  |
|    |        |     | 외모 평가               | 1  |
|    |        |     | 성적 대상화              | 1  |
|    |        |     | 기타                  | 4  |
| 40 | 한국일보   | 1   | 외모 평가               | 1  |
| 43 | KBS    | 2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2  |
| 44 | MBC    | 1   | 기타                  | 1  |
| 45 | MBN    | 2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2  |
| 46 | OSEN   | 9   | 외모 평가               | 7  |
|    |        |     | 성적 대상화              | 1  |
|    |        |     | 기타                  | 1  |
| 47 | SBS    | 5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3  |
|    |        |     | 외모 평가               | 1  |
|    |        |     | 기타                  | 1  |
| 48 | YTN    | 1   |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 1  |
| 합계 |        | 227 | -                   |    |

성차별적인 구조를 지적하고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비가시화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와 페미니즘 운동을 잘 담아낸 기사 6건을 성평등한 기사로 선정하였다. 보좌진 중 최고 직급인 4급 보좌관 중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가 여성 유리천장에서 비롯함을 드러내며, 국회의 성차별적 문화 개선을 촉구한 KBS의 <① “의원님, 저 사실 결혼했는데요”…의원실 그녀들의 사정>, 전북지역 지상파방송사에서 시청자 의견을 대변하는 시청자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을 지적한 미디어오늘의 <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 73% 남성, 직업 불균형도> 등은 국회와 언론 조직의 남성 중심 문화를 지적하며 여성들이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한 문화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오마이뉴스의 <“천천히 버티면서…” 데뷔 33년 차 박미선의 '별난' 생존법>에서는 성차별적 발언에 일침을 가하며 긴 방송 생활을 버텨온 여성 희극인 박미선을 조명하면서 활동가로서 그의 업적을 부각했다. 경향신문 <“지선우가 이 책을 읽었다면”…기혼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진짜 '부부의 세계'>에서는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비혼·비출산이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자 대안으로 여겨지며 기혼 여성들을 손쉽게 ‘가부장제 부역자’라 칭하는 현실 속에서 기혼 여성들이 자신들의 페미니즘 언어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었기에 성평등한 사례로 선정하였다.

#### KBS / 06.13 ① “의원님, 저 사실 결혼했는데요”…의원실 그녀들의 사정

“4급 보좌관은 의원실 직원을 리드하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조직을 리드하는 데는 남자가 적합하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특히 4급으로 올라갈수록 남성 보좌관이 많고 여성 보좌관이 극소수인 상황인 것 같아요.” 국회 내 유리천장을 조명하는 연속 기사의 1편에는 이같이 국회 속 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해 지적한다. 메인에 노출된 해당 1편 기사에서는 실제 보좌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 보좌진들이 결혼과 임신 및 출산, 육아를 이유로 고위급까지 올라갈 수 없는 현실을 드러냈다. 후속 기사에서는 “국민 생활 하나하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국회 보좌관 업무 문화가 성차별적이기에 “훌륭한 여성 인재들이 소외되는” 현상은 국가 전체의 손해를 지적하며 육아 휴직 등의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인 문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미디어오늘 / 06.14 중앙일간지 필진 164명 중 남성 112명

주요 중앙일간지 9곳의 오피니언 필진을 분석한 기사다.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새로운 필진 알림 발표 내용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총 필진의 68%가 남성이었다. “신문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부분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낸 점이 긍정적이나, 성비 불균형이 어떠한 문제점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서술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각 지면에 실린 새로운 필진 범위임.

#### 미디어오늘 / 06.14 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 73% 남성, 직업 불균형도

전북지역 지상파방송사 시청자 의견을 대변하는 시청자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을 지적한 기사다. 시청자위원회의 성별, 직업별 대표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18~2020년 성비가 남성이 72.7%, 여성이 27.3%라는 점을 밝히고 방송사별로도 성비를 서술했다. 성비와 직업별 다양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방송사 내 성비 불균형을 해결해야 함을 촉구했다.

#### '지역방송' 번지르르한 말들을 넘어서

지역방송사의 노동 문제 등을 다룬 기사로, 유지는 아나운서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전MBC의 채용 성차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례를 제시했다. 유지는 아나운서는 대전MBC가 1990년대부터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 뽑는 성차별적인 채용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사는 유지는 아나운서가 공동대책위원회를 세우고 계속 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며 언론계에서 여성이 차별당하는 현실과 그에 대항하는 여성 아나운서의 투쟁을 드러내었다.

#### 오마이뉴스 / 06.10 “천천히 버티면서…” 데뷔 33년 차 박미선의 '별난' 생존법

해당 기사는 한 개그우먼의 활약상을 보도하며 '남성 방송인의 전유물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개그 토크쇼', '남성 중심적 사회를 향해 일갈했던 000' 등의 서술을 통해 해당 연예인이 오랜 시간 방송 활동을 하며 '성차별적' 방송계의 구조 안에서 버텨음을 짚어내고,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살아남은 여성의 노력과 능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금도 TV, 유튜브 등을 틀면 은밀히 남아있는 성차별적인 발언, 선입견에 바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여성 방송인을 만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서술하며 여전히 불균형하고 차별적인 방송 현실을 가시화하였다.

#### 경향신문 / 06.13 “지선우가 이 책을 읽었다면”…기혼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진짜 '부부의 세계'

기혼 여성들이 모여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책을 펴내는 모임인 '부너미'를 인터뷰한 기사다. '남편의 혼외 섹스는 성차별에서 시작된다', '국내 페미니즘 이슈는 학자 중심, 비혼 여성 중심으로 다뤄졌어요 (중략) 다양한 여성들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등의 의견에 주목한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비혼·비출산이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자 대안으로 여겨지며, 기혼 여성들을 손쉽게 '가부장제 부역자'라 칭하는 현실 속에서 기혼 여성들이 자신들의 페미니즘 언어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제시된 제목과 클릭 후 나타나는 기사의 실제 제목이 다른 경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실린 제목은 실제 제목보다 짧게 요약되었거나 또는 더 자극적으로 편집된, 실제 기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제목이었다.

예시- 중앙일보 6.12일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해당 기사 클릭시 나타나는 기사 제목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된 언론사의 뉴스 정보를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 제휴서비스로, 언론사가 편집한 화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라갈 때 기사 제목이 달라지는 것은 언론사가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여진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속 언론사들이 서로 경쟁하며 페이지뷰(PV) 수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 편집을 해왔다는 점은 이미 문제시되어 왔고<sup>2</sup>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언론사들은 뉴스스탠드 제목을 자극적으로 편집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점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성차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네이버 뉴스스탠드의 제목이 문제적일 경우 따로 해당 네이버 뉴스스탠드 캡처본을 첨부하였다. 더불어 성차별 사례 수가 많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보고서에 담았다.

<sup>2</sup> 네이버에서 뉴스가 사라진다고요?, 한겨레, <http://m.hani.co.kr/arti/economy/it/865659.html#cb>

## 1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사례로 5건이 발견되었다. 거친 매력을 ‘남성’의 것, 핑크색을 ‘여성’의 것으로 이분화하거나 결혼, 나이 등을 여성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게 하는 기사들이었다. 또한 특정한 성별은 특정한 속성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인식하에, 특정 성을 비하하는 사례 또한 발견되었다. 스포츠 동아의 <이소연, 오윤아 썸 언니 과거 폭로 “뽀뽀 맞아”> 기사 제목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 내용을 강조하여 ‘폭로’, ‘충격 과거’, ‘썸 언니’, ‘뽀뽀 맞아’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치 과거에 다른 여성에게 사적인 일로 뽀뽀를 맞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두 여성 배우가 함께 출연했던 드라마 내 장면에서 뽀뽀를 맞은 장면을 언급한 것이었다. 이는 한 여성 연예인을 ‘썸 언니’로 묘사하고, ‘썸’의 의미를 다른 여성에게 함부로 하고 적대하는 것으로 의미화하는 방식이다. 이 내용은 여적여 프레임에 활용하는 여성혐오적 묘사에 해당한다. 이처럼 기사에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 사실을 활용하며, 그 자극성이 사회의 여성혐오에 기대어 이를 재생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스포츠서울 / 06.10

실제 기사 제목 '침입자' 송지호 "올해 마흔, 결혼 생각은 아직...지금 행복해요"[SS인터뷰]  
뉴스스탠스 제목 송지호 "올해 마흔, 결혼은..."

여성 연예인의 이름과 함께 "올해 마흔, 결혼은..."이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함. 기사 대부분은 개봉 예정인 영화 속 새로운 캐릭터를 맡게 된 이야기이며, 후반부에는 "보통 제 나이 때에는 가정을 꾸리지 않나. 그런데 저는 지금 자체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이를 깨줄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행복한 이 삶을 깨트리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다."라는 배우의 결혼관 발언이 실려 있음. 하지만 진지하게 배역에 대해 고민하는 인터뷰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의 나이와 함께 결혼 관련 궁금증을 자아내는 내용이 제목으로 부각 됨. 이는 여성은 나이가 중요하며, 결혼을 해야 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함.

스포츠동아 / 06.11

실제 기사 제목 이소연, 오윤아와 충격 과거 회상 "첫만남에 뽀뽀 맞았다"  
뉴스스탠스 제목 이소연, 오윤아 썸 언니 과거거 폭로 "뽀뽀 맞아"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 내용을 강조하여 폭로, 충격 과거, 썸 언니, 뽀뽀 맞아 등의 표현을 사용. 마치 과거에 다른 여성에게 사적인 일로 뽀뽀를 맞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두 여성 배우가 함께 출연했던 드라마 내 장면에서 뽀뽀를 맞은 장면을 언급한 것. 이는 '썸 언니'로 한 여성 연예인을 묘사하고, '썸'의 의미를 다른 여성에게 함부로 하고 적대하는 것으로 의미화하는 방식. 이 내용은 여적여 프레임을 활용하는 여성혐오적 묘사에 해당. 이처럼 기사에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 사실을 활용하며, 그 자극성이 사회의 여성혐오에 기대 이를 재생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적.

## 2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범죄 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구조적 접근과 같이 저널리즘 윤리에 입각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결과, 클릭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선정적인 보도 방식을

택한 문제적 사례가 30건 지적되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마련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도 위배된다. 기사의 제목만 훑는 사람도 있다는 점에서, 기사제목은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제목에 가해자의 변명이나 서사를 활용

성범죄 사건의 기사 제목에 가해자의 변명이나 서사를 활용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의 틀을 지우고 가해자를 대변하는 결과를 낼 수 있기에 문제적이다.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지침은, 가해자가 음란물, 술 또는 약물 등에 탐닉하였거나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                                     |
|------------------------------------------------------------------------------------------------------------------------------------------------------------------------------------------------------------------------------|-------------------------------------|
| 동아일보 / 06.10                                                                                                                                                                                                                 | 성추행 부장검사, 경찰 조사서 "술 취해 기억 안 나"      |
| KBS / 06.10                                                                                                                                                                                                                  | CCTV 찍혔는데도 "술 취해 기억 안 나"…부장검사 혐의 부인 |
| 성추행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변명한 점을 강조해 제목으로 실었기에 문제적                                                                                                                                                                      |                                     |
| 세계일보 / 06.12                                                                                                                                                                                                                 | "구치소에서 반성·후회"…조주빈, 거의 매일 반성문 냈다     |
|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조 씨의 변호인은 반성문의 내용에 대해 "조주빈이 반성하고 있고 글 쓰는 걸 좋아한다."라며 "아버지한테 편지도 많이 쓰고 지금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구치소에서 매일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심정으로 쓰는 거로 안다."라고 설명함. 사건의 가해자 상황을 대변하는 기사의 제목은 성폭력 가해자의 상황을 대변하거나 그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에 문제적. |                                     |
| SBS / 06.16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중형도 좋으니 한국서 처벌받고 싶다"  |
| "손 씨가 울먹이며 진술을 이어가자 방청석에 있던 손 씨의 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부정'을 강조함. 기사제목 역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적.                                                                                                          |                                     |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선정적인 표현 사용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사건을 자극적인 소재로 소비한 사례가 9건 발견되었다. 아래 사례에서 발견되는 ‘의붓딸’ ‘만취 여성’ ‘벗방BJ’와 같은 표현은 비단 선정적 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특성을 강조하고 초점을 두어 피해자에게 시선을 이동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 양상을 상상하게 하여 성범죄 피해자를 관음의 대상으로 만든다.

|                                                            |                                        |
|------------------------------------------------------------|----------------------------------------|
| SBS / 06.11                                                | 실제 기사 제목 "성폭력 가해자랑 결혼하라면 경찰, 어이없더라고요." |
| 뉴스스텐스 제목                                                   | "혀 잘린 키스" 고발에 쏟아진 성폭력 생존자 사연           |
| 실제 기사 내용은 긍정적임. "최근 56년 만의 미투로 화제에 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18살 때 괴한의 |                                        |

성폭행에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문 행위로 징역형을 살았던 최말자(74) 씨입니다. 긴 세월 동안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지 못한 최 씨는 지난달 당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탠드는 당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한 상황을 ‘혀 잘린 키스’라고 자극적으로 표현하며 이를 제목으로 삼음.

|                                                                                                              |                                                             |
|--------------------------------------------------------------------------------------------------------------|-------------------------------------------------------------|
| 중앙일보 / 06.12                                                                                                 | [단독]"너 목 뜯어볼까"…'벗방 BJ' 성착취 의혹 수사 착수                         |
| 소속사가여성 BJ들을 성 착취한 내용의 기사.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했던 자극적인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실음.                                                |                                                             |
| 국민일보 / 06.12                                                                                                 | "성폭행 당할뻔" 만취 여성 승객이 택시 '강탈'한 이유                             |
| '만취 여성 승객'이라는 피해자의 특성에 초점을 둔 단어를 제목에 사용. 더불어 "성폭행 당할뻔"이라는 자극적인 단어 사용.                                        |                                                             |
| 아시아경제 / 06.10                                                                                                | 실제 기사 제목 유명 음악 프로듀서 '지인 동생 성폭행' 구속기소                        |
| 뉴스스텐스 제목                                                                                                     | 밤에 몰래… 유명 음악PD 지인 여동생 성폭행                                   |
| '밤에 몰래'라는 단어와 말줄임표를 통해 성범죄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으로 소비함.                                                          |                                                             |
| 마이데일리 / 06.12                                                                                                | 실제 기사 제목 日 배우 야마우치 다이스케, 70대 여성 성폭행 시도하다 체포…소속사 "사죄" [MD재팬] |
| 뉴스스텐스 제목                                                                                                     | 20대 배우, 70대 여 성폭행 하려다 체포 '충격'                               |
| 피해자는 나이와 성별을 모두 표기했지만 가해자는 나이와 직업만 표기하고 성별은 생략하였음. 더불어 피해자의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하며 ‘충격’과 같은 표현을 통해 성폭행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함. |                                                             |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묘사

가해자를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상당수가 지인에 의한 혹은 위력에 의해 일어나는 성범죄의 속성을 가리게 되기에 문제적이다.

|                                                                                                                                                                                              |                                       |
|----------------------------------------------------------------------------------------------------------------------------------------------------------------------------------------------|---------------------------------------|
| 중앙일보 / 06.10                                                                                                                                                                                 | 성폭행 발뺌 DNA 검사로 들통…'귀요미송' 작곡가의 두얼굴     |
| 기사 제목에서 성폭력 가해 사실을 피의자의 ‘두얼굴’이라고 표현. 성범죄 피의자를 이중성 있는 특수한 타자로 설정한 것임. 성범죄 사건 보도 시 가해자를 비일상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에서,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권력을 이용하여 발생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
| 중앙일보 / 06.12                                                                                                                                                                                 | "아빠 소원이다"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계부         |
| SBS / 06.12                                                                                                                                                                                  | [Pick] "아빠 소원이라면서"…'짐승만도 못한' 계부 징역 7년 |
| 뉴스스 / 06.12                                                                                                                                                                                  | "아빠 소원이다"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계부 징역 7년   |
| 기사 제목에 가해자가 성폭력 당시 직접 한 말을 인용하였고,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 '계부' '짐승만도 못한' 등의 성범죄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게끔 만드는 단어를 사용함.                                                                                    |                                       |

성범죄 및 여성 혐오 범죄를 사소화시키는 표현 사용

서울YWCA는 지난 5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야동’ ‘음란물’로 바라보는 보도 사례에 문제를 제기했다. ‘불법 촬영물’을 ‘몰카’로, ‘성 착취물’을 ‘음란물’로 표현하며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를 사소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음란물’이라는 용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성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매우 기본적인 욕구라는 전제하에 남성의 성욕을 정당화/자연화 하는 담론 속에서 사용되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6월 인터넷 기사 모니터링에서도 ‘음란물’ ‘몰카’ ‘성인물’ 등의 단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12건). 더불어 성범죄를 ‘몸쓸 짓’이라고 표현해 성범죄를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여성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사례도 발견했다(1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문지마 폭행’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다. ‘문지마 폭행’은 기사 용어이고, 법제도적 용어는 ‘무차별 범죄’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련이 없는 범죄’를 말한다. 무차별 범죄에 관한 통계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차가 크게 드러나지 않음을 본 단체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보도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련성 없음’은 인정 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정하는 데에는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가 명확함에도 이를 언론이 ‘무차별 범죄’로 다룰 때, 사회의 젠더권력 문제나 여성안전에 대한 문제지점이 사장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문제적 표현 | 기사 수(건) |
|--------|---------|
| 음란물    | 9       |
| 몰카     | 2       |
| 성인물    | 1       |
| 몸쓸 짓   | 1       |
| 문지마 폭행 | 3       |
| 합계     | 16      |

3  
외모에 대한 평가

외모지상주의와 성적 대상화 사례를 보고서에 게재할 때 기사 제목에 언급된 여성 연예인의 실명을 다시 거론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연예인 실명+외모 평가/성적 대상화’로 구성된 제목의 문제성을 드러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명을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다른 사례들과 다르게 사진을 제외했고 본문 서술에서도 가급적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외모 평가의 사례로 총 61건이 발견되었고, 여성에게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강요하는 사례 15건, 외모 강조 사례가 46건 발견되었다. 보고서에는 대표적인 사례만 실었다.

여성의 신체 일부를 강조하며 외모 평가

여성 연예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셀카 사진, 시사화, 광고 현장에서 찍힌 여성 연예인 사진을 가져와 맥락과는 전혀 관계없이 여성의 신체를 강조한 기사 제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다이어트와 전혀 관련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다이어트’ ‘요요’ ‘무보정 몸매’ 등을 강조해 여성들에게 획일적인 몸의 기준을 강요했다. 반면 여성 연예인의 ‘마른 몸’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여성 연예인들이 처한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며 이들의 몸이 언론사의 평가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
|---------------|-----------------------------------------------------------------------------|
| 스포츠조선 / 06.16 | '이경규 딸♥' 이예림, 다이어트 성공 후 '물오른 비주얼'                                           |
| OSEN / 06.11  | "아이돌 엄마 맞아?" 가희, 바닷 바람맞은 청량美 ('자숙 끝' 가희, 가족들과 바다로…리조트 '청바지핏' 되찾았다 [★SHOT!]) |
| 06.13         | '홍진영 언니' 홍선영, 18kg 요요 후 다시 다이어트 '날렵해진 턱선..어플 덕?'[★SHOT!]                    |
| 스포츠동아 / 06.15 | [종합] 권미진 다이어트 근황 103kg→50kg대 유지, 비주얼 '대박'                                   |
| 스포츠조선 / 06.14 | 구혜선, 11kg 감량 후 되찾은 '얼짱' 시절 미모…청순美에 '감탄'                                     |
| 마이데일리 / 06.11 | [MD화보] '그림자도 앙상하네'…천이슬, 뺄만 남은 다리                                            |
| 06.11         | 옥주현, 다이어트 성공 후 발레복 입고 각선미 자랑 '독보적 몸매'                                       |

‘미모’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외모를 평가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는 여성의 외모가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또한 외모를 기준으로 비하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특성에 대한 다양성의 가치를 위반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                                                                                      |                                                                                                    |
|--------------------------------------------------------------------------------------|----------------------------------------------------------------------------------------------------|
| 스포츠동아 / 06.15                                                                        | <div>실제 기사 제목채정안, 너무 과한 소탈? 화장기 없는 수수한 미모</div> <div>뉴스스텐스 제목채정안, 과한 소탈... 세월 못 이긴 충격 비주얼</div>    |
| 배우가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다룬 기사. 네이버 뉴스스탠드 기사 제목에서 '과한 소탈', '세월 못 이긴 충격 비주얼'이라는 표현으로 외모를 평가 |                                                                                                    |
| 마이데일리 / 06.15                                                                        | <div>실제 기사 제목'식빵언니' 김연경, 앞머리+메이크업으로 뽐낸 '역대급 미모'</div> <div>뉴스스텐스 제목김연경, 걱정하고 꾸미면 여신... '역대'</div>  |
| 배구선수가 개인 SNS에 올린 일상 사진을 다룬 기사. 네이버 뉴스스탠드 기사 제목에서 '걱정하고 꾸미면 여신'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외모 평가     |                                                                                                    |
| 06.16                                                                                | <div>'이경규 딸' 이예림, 몰라보게 예뻐졌네..."한강 돛자리 대신 차에서 휴식"</div>                                             |
| 배우가 개인 SNS에 올린 일상사진을 가져와 '(이전에 비해) 몰라보게 예뻐졌다'며 외모를 평가                                |                                                                                                    |
| 06.16                                                                                | <div>실제 기사 제목'한옥마을에 뜬 여신'...강소라, 수수함 100% 민낯</div> <div>뉴스스텐스 제목'입술까지 자연미인'... 강소라, 수수한</div>      |
| 배우가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다룬 기사. 네이버 뉴스스탠드 기사 제목에서 '입술까지 자연미인'이라는 수식어로 여성의 외모를 평가           |                                                                                                    |
| 일간스포츠 / 06.12                                                                        | <div>실제 기사 제목[화보IS] 장희진 "밝은 캐릭터 같증, '슬의생' 같은 작품 만나고파"</div> <div>뉴스스텐스 제목장희진, 사랑스러운 미모에 시선집중</div> |
| 배우의 화보 촬영에 관한 기사. 네이버 뉴스스탠드 기사 제목에서 '사랑스러운 미모'라며 외모를 평가                              |                                                                                                    |
| 이데일리 / 06.12                                                                         | <div>실제 기사 제목[포토]허다빈 '연습중 즐거운 대화'</div> <div>뉴스스텐스 제목안개속 미녀</div>                                  |
| 골프선수가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다룬 기사. 네이버 뉴스스탠드 기사제목에서 '안개속 미녀'라고 내용과 무관하게 여성의 외모를 평가.            |                                                                                                    |

4  
성적 대상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성적 대상화 사례는 무려 102건이었다. 한 연예인에 대한 기사가 반복되기도 했고, 성적 대상화의 방식이 동일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기에 보고서에는 대표적인 사례만 실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기사 제목과 관행적 묘사 방식

해당 기사들은 실제 기사 내용보다 ‘제목’이 심각한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제목은 ‘여성 연예인 이름

+ 몸 일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성의 몸 일부를 서술할 때는 ‘감탄을 자아내는’ ‘치명적인’ ‘아찔한’과 같은 수식어 또는 ‘초밀착’ ‘속살’ ‘글래머’ ‘볼륨’ ‘개미허리’와 같이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해 남성의 시선에서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바라보았다. 아래 사례들은 여성의 몸을 특정한 신체부위를 강조하고 부각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매우 많은 매체들이 유사한 표현을 사용함을 드러낸다.

|                                                                                                                                                 |                                                                                                 |
|-------------------------------------------------------------------------------------------------------------------------------------------------|-------------------------------------------------------------------------------------------------|
| 스포츠서울 / 06.11                                                                                                                                   | <div>실제 기사 제목김정은, 샤워가운데도 빛나는 각선미 "너무 더워 한 잔 중"[★SNS]</div> <div>뉴스스텐스 제목김정은, 가운 입고 각선미 자랑</div> |
| SNS에 업로드한 배우의 사진을 가져와 배우이름 + '각선미 자랑'이라는 표현을 사용. 여성의 신체를 분절해(각선미) 강조함                                                                           |                                                                                                 |
| 일간스포츠 / 06.13                                                                                                                                   | <div>'러블리즈' 서지수-류수정, 개미허리 뽐낸 아찔 의상</div>                                                        |
|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SNS에 올린 사진에 관한 기사. 메인 페이지 및 제목에서 아이돌 이름 + '개미허리 뽐낸 아찔 의상'이라는 표현으로 신체를 분절해(개미허리) 강조함                                                |                                                                                                 |
| 06.14                                                                                                                                           | <div>주결경, 잘룩한 개미허리 드러내며..청순+섹시</div>                                                            |
| 가수가 SNS에 올린 사진에 관한 기사. 제목에서 가수 이름 + '잘룩한 개미허리 드러내며..청순+섹시', 본문에서 '여리여리한 어깨라인과 잘룩한 개미허리를 드러내 청순하면서 섹시한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표현으로 여성의 신체를 분절해(어깨/개미허리) 강조함 |                                                                                                 |
| 06.12                                                                                                                                           | <div>이유비, 쇄골라인 드러난 파격 패션</div>                                                                  |
| 배우가 SNS에 올린 화보 촬영 현장 사진에 관한 기사. 기사 제목에서 배우 이름 + '쇄골라인 드러난 파격 패션'으로 표현하여 여성의 신체를 분절해(쇄골라인) 강조함                                                   |                                                                                                 |
| 스포츠조선 / 06.11                                                                                                                                   | <div>조현, 브라톱+레깅스로 뽐낸 볼륨 몸매..청순 글래머의 정석</div>                                                    |
| 아이돌이 SNS에 올린 사진을 다룬 기사. 기사 제목에 아이돌 이름 + '볼륨 몸매', 본문에서 '글래머' '잘룩한 허리라인' '볼륨감 넘치는 몸매'와 같은 단어로 여성의 신체를 분절하여(가슴) 강조.                                |                                                                                                 |
| 스포탈코리아 / 06.10                                                                                                                                  | <div>호날두 여친, 운동복만 입어도 글래머 끝판왕</div>                                                             |
| 모델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다룬 기사. 제목에서 00여친 + '글래머 끝판왕'이라고 묘사해 여성의 신체를 분절하여(가슴) 강조                                                                      |                                                                                                 |

(여성 연예인들이 개인 SNS에 올린) 이미지 편집을 통한 여성 신체의 대상화

아래 사례들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성적 대상화된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한 경우다. 연예인이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올린 전신사진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의도적으로 잘라 기사 메인 사진으로 노출함으로써 클릭을 유도하였다. 이미지를 편집과 가공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여성을 시각적 대상으로 여기는 언론의 성차별적인 인식을 명확히 드러냈다. 성차별적인 이미지를 보고서에 실는 것이 성차별의 효과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진은 설명으로 대신했다.

|                                                                                                                                       |                                                                                              |
|---------------------------------------------------------------------------------------------------------------------------------------|----------------------------------------------------------------------------------------------|
| 스포츠서울 / 06.15                                                                                                                         | <div>실제 기사 제목'벗을 듯 말 듯' 티셔츠 올리고 볼륨감 뽐낸 모델</div> <div>뉴스스텐스 제목티셔츠 말아 풀린 女 모델의 유혹</div>        |
| 레이싱 모델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가져와 여성의 신체 중 '가슴'을 분절해 강조해서 편집함.                                                                                 |                                                                                              |
| 일간스포츠 / 06.09                                                                                                                         | <div>김한나 치어리더, CF뽐치는 아찔 수영복 자태</div>                                                         |
| 치어리더 여성이 SNS에 올린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가져와 여성의 '가슴'과 '다리'를 강조해 편집함.                                                                             |                                                                                              |
| 스포츠서울 / 06.11                                                                                                                         | <div>실제 기사 제목'조명보다 눈부셔'...신재은, 청순 글래머의 정석</div> <div>뉴스스텐스 제목청순 글래머, 속옷만 걸친 채 포즈</div>       |
| 모델이 개인 SNS에 올린 수영복 사진을 다룬 기사. 수영복을 '속옷'으로 묘사하며 썸네일 사진으로 여성 모델의 '가슴'을 확대한 이미지를 사용함.                                                    |                                                                                              |
| 06.09                                                                                                                                 | <div>실제 기사 제목애플힙, 글래머, S라인...제시 뒤통 공개[★SNS]</div> <div>뉴스스텐스 제목제시, 원피스 뚫을 듯한 몸매</div>        |
| 가수가 SNS에 올린 일상사진을 가져와 가수의 엉덩이만을 분절해 편집함.                                                                                              |                                                                                              |
| 마이데일리 / 06.10                                                                                                                         | <div>실제 기사 제목전소미, 성숙 매력+여성美 물씬...최유정 "다 컸어 예뻐이"</div> <div>뉴스스텐스 제목전소미, 언뜻 보이는 한줌 개미허리</div> |
| 가수가 SNS에 올린 일상사진을 가져와 신체를 분절해 '허리라인'(개미허리)을 강조함.                                                                                      |                                                                                              |
| 일간스포츠 / 06.10                                                                                                                         | <div>신재은, 'CG급 몸매로 시선집중'</div>                                                               |
| 모델이 SNS에 올린 수영복을 입은 사진에 관한 기사. 사진에서 여성의 가슴을 강조하고, 제목에서 "CG급 몸매로 시선집중", 본문에서 "완벽한 보디라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라는 표현으로 여성의 가치를 몸에 환원하는 성차별적인 표현 사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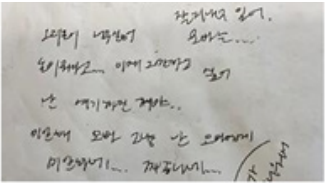
5  
기타: 성차별적인 접두사 ‘여’ 사용

직업/자격 등을 비하하는 ‘여OO’

2018년과 2019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일상생활 속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개선하는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성평등 언어사전을 통해 여OO와 같이 직업 앞에 접두사 여(女)를 붙이는 여의사, 여배우, 여직원, 여대생, 여기자, 여류작가 등의 단어가 성차별적인 언어임을 드러내며, 직업 등 앞에 붙이는 여를 뺀 성평등 한 언어 사용을 촉구했다. 여배우 등의 표현은 남

성을 주류로 전제하고, 비주류인 여성을 특정하여 예외로 여겨지도록 하는 방식이기에 문제적이다. 또한 ‘여 공무원’ ‘여경’과 같은 단어는 신체적 특징 때문에 여성이 해당 업무에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기에 문제적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업무 중 일어나는 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인터넷 기사를 통해 발견된 25건의 사례는 언론사가 여전히 직업과 업무의 부적절성 혹은 편견을 담은 의미로 직업 앞의 접두어로써 ‘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                                                                                                                                                       |
|----------------|-------------------------------------------------------------------------------------------------------------------------------------------------------|
| 한국경제 / 06.12   | <div>실제 기사 제목가세연 "송중기 열애설 당사자는 돌싱" 개인사 과도한 폭로 '논란'</div> <div>뉴스스텐스 제목송중기 아니라는데... "女변호사는 돌싱" 폭로</div>                                                |
| 마이데일리 / 06.12  | [종합] 송중기 "악성루머 법적조치" 경고 불구...가세연 '女변호사 이름+사진' 폭로 파문                                                                                                   |
| 조선일보 / 06.12   | "송중기의 그녀는..." 가세연, 女변호사 신상 폭로 논란<br>(송중기 열애설' 女변호사 신상 공개한 가세연...송 측 "허위사실" 법적 대응)                                                                     |
| '女변호사'         |                                                                                                                                                       |
| 서울신문 / 06.12   | 70년대 트로이카 여배우? ([선 넘는 일요일] 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유지인의 그때 그 모습은?)                                                                                            |
| 한국경제 / 06.10   | <div>실제 기사 제목[단독] 한미모 "변수미 추가 피해자 증언, 다 맞아" (인터뷰)</div> <div>뉴스스텐스 제목[단독] "모두 사실" ... 女배우 '폭로' 또 나왔다</div>                                            |
| 스포츠서울 / 06.13  | <div>실제 기사 제목진재영, 반짝이원피스에 와인병 든 구릿빛 몸매 '제주댁의 불금' [★SNS]</div> <div>뉴스스텐스 제목40대 여배우, 나이 잊은 '술주정 셀카'</div>                                              |
| 중앙일보 / 06.11   | 이혼 1년만에 18살 연하와 스캔들 난 여배우                                                                                                                             |
| 파이낸셜뉴스 / 06.12 | <div>실제 기사 제목엄정화, 첫 웨이크서핑 실력이 이 정도...김혜수 "오 마이 갓"</div> <div>뉴스스텐스 제목김혜수 "오 마이 갓" ... 女배우 정체</div>                                                    |
| 스포츠서울 / 06.11  | <div>실제 기사 제목'나 혼자 산다' 유이, 3년차 자취러의 리얼한 일상 공개</div> <div>뉴스스텐스 제목'자취 3년차' 여배우의 적나라한 일상<br/>... MBC "나 혼자 산다"에 유이가 첫 출연, 자취러의 리얼한...</div>             |
| 마이데일리 / 06.12  | <div>실제 기사 제목[종합] "남편 일로, 불쾌함 드러서 죄송합니다"</div> <div>...사사키 노조미, '15세연상 남편' 와타베켄 불륜 스캔들 대신 사과</div> <div>뉴스스텐스 제목'진정한 보살'... 여배우, 남편 불륜스캔들 대신 사과</div> |
| '여/女배우'        |                                                                                                                                                       |
| 중앙일보 / 06.13   | 검찰 8급 여직원의 '300억 뒤통수'...동료들은 치 떨었다                                                                                                                    |
| '여직원'          |                                                                                                                                                       |
| 이데일리 / 06.15   | 김제시의원, 동료 의원과 불륜 인정.."女의원 남편에 사퇴 압박"                                                                                                                  |
| 머니투데이 / 06.16  | 김제시의원들 불륜에 '발각'...공무원노조 "女의원도 사퇴하라"                                                                                                                   |
| '女의원'          |                                                                                                                                                       |

|                |                                                                                                                                                                                                                            |
|----------------|----------------------------------------------------------------------------------------------------------------------------------------------------------------------------------------------------------------------------|
| 파이낸셜뉴스 / 06.16 | <div>실제 기사 제목5선의원과 소신 PD…김현정 "전 그래도 '박병석 의장'" vs 조경태 "박 의원"</div> <div>뉴스스텐스 제목"왜 자꾸.." 조경태 의원 요구 뿌리친 女PD의 정체</div> <div>'女PD'</div>                                                                                       |
| MBC 뉴스 / 06.15 | <div>[World Now] 도지사 된 女앵커 과거 어떻길래?…폭로 책 인기 폭발</div> <div>'女앵커'</div>                                                                                                                                                      |
| 파이낸셜뉴스 / 06.11 | <div>실제 기사 제목'골목식당' 백종원, 서산 불고깃집 사장과 1년만에 재회…변한 음식에 '씹쓸'</div> <div>뉴스스텐스 제목맛 변한 서산 불고기집, 백종원 지적에 女사장이…</div> <div>'女사장'</div>                                                                                             |
| 일간스포츠 / 06.11  | <div>실제 기사 제목[할리우드IS] 래퍼 이기 아질리아, 아들 고백 "비밀로 하고 싶지 않아"</div> <div>뉴스스텐스 제목女 래퍼, 충격 고백 "아들 비밀로 하고 싶지 않아…"</div> <div>'女래퍼'</div>                                                                                            |
| 아시아경제 / 06.10  | <div>女공무원 주먹질로 실신 시켜놓고…태연히 아이스크림 먹은 남성</div> <div>'女공무원'</div>                                                                                                                                                             |
| 파이낸셜뉴스 / 06.10 | <div>실제 기사 제목"그만 괴롭혀" 유서 오리온 직원 유족, 산업재해 신청</div> <div>뉴스스텐스 제목입사 3개월만에 정직원된 오리온 女직원 자살, 유서에 적힌 이름은…</div> <div></div> <div>'女직원'</div> |
| 문화일보 / 06.14   | <div>'돌아온 바둑황제' 조훈현, 4년만의 복귀전서 '바둑여제'에 패배</div> <div>남성 바둑기사는 '황제', 여성 바둑기사는 '여제'라고 지칭</div>                                                                                                                               |
| 한국경제 / 06.12   | <div>최희, 결혼 두 달 만에 임신 "아기천사 찾아와…인생의 중요한 변화"</div> <div>여성 스포츠 아나운서이자 방송인을 '야구 여신'이라고 지칭함.</div>                                                                                                                            |

선정주의적 소재로 ‘여’를 사용

또한, 접두사 여(女)는 언론사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클릭 수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중앙일보의 <온라인에서 난리난 女 정체>의 기사의 경우 내용은 디지털 휴먼 개발 소식이 있음에도 기사 제목은 자극적으로 ‘온라인에서 난리난 女 정체’ 라고 붙이면서 여성을 관심을 끌기 위한 소재로 사용했다. 파이낸셜 뉴스의 고군산대교에서 바다로 추락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는 <다리서 바다로 추락한 女 시신 발견, 옷차림 보나…>와 같은 제목으로 사고 소식과 전혀 무관한 여성의 옷차림을 ‘…’을 통해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으로 암시했다. 즉, 내용과 전혀 무관함에도 해당 제목들이 사용된 것은 ‘여’라는 단어를 선정주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
|----------------|-------------------------------------------------------------------------------------------------------|
| 한국경제 / 06.16   | <div>실제 기사 제목'비스' 강부자, 루머 직접 일축 "후배들에 회장 소개시켜줬다고…"</div> <div>뉴스스텐스 제목강부자 "女후배들에 회장 소개?" 해명</div>     |
| 중앙일보 / 06.12   | <div>[e글중심] "사이버가수 아담 대를 잇나" … 더 진짜 같은 디지털휴먼 탄생</div> <div>뉴스스텐스 제목온라인서 난리난 女 정체</div>                |
| 파이낸셜뉴스 / 06.10 | <div>실제 기사 제목고군산대교에서 바다로 추락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종합)</div> <div>뉴스스텐스 제목다리서 바다로 추락한 女 시신 발견, 옷차림 보나…</div> |
| 스포츠동아 / 06.15  | <div>실제 기사 제목'루카 요비치 불륜' 소피아, 임신 당당 고백…과감 해시태그까지</div> <div>뉴스스텐스 제목파워당당 상간녀, 축구선수 불륜에 임신…</div>      |
| SBS / 06.11    | <div>실제 기사 제목[월드리포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 당한' 中 여성</div> <div>뉴스스텐스 제목"내가 이혼녀?" 자신도 모르게 결혼당한 황당…</div>     |

## 03 나가며

227건이라는 성차별 보도 수는 놀랍다. 스포츠·연예 언론사에서 발견된 성차별 사례가 무려 145건(전체 성차별 사례 중 63.8%)이었고, 그중 80건이 성적 대상화 사례였다. 2019년 모니터링에서도 스포츠·연예 언론사가 성차별 보도 수가 가장 많은 상위 매체였다는 점은 스포츠·연예 언론사가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클릭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스포츠·연예 언론사에서 여성 스타들이 올린 SNS 사진을 중계하면서 성적 대상화하는 관행이다. 여성 연예인의 일상사진에 ‘감탄을 자아내는’ ‘치명적인’ ‘아찔한’과 같은 수식어 또는 ‘초밀착’ ‘속살’ ‘글래머’ ‘볼륨’ ‘개미허리’와 같이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해 남성의 시선에서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바라보는 경우, 연예인이 일상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올린 전신사진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의도적으로 잘라 기사 메인 사진으로 노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는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여성을 시각적 대상으로 여기는 언론의 성차별적인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다. 물론 남성 스타들 또한 SNS에 업로드된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만, 여성 연예인의 사진일 경우 썸네일과 제목을 통해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혀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SNS가 개인 공간으로 여겨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연예인들이 올린 일상사진을 차별적인 프레임에 맞춰서 가져와 기사화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적이라고 보여진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여OO, OO녀 등의 여성을 한정하는 하는 접두사 女(여)의 사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배우 등의 표현은 남성을 주류로 전제하고, 비주류인 여성을 특정하여 예외로 여겨지도록 하는 방식이기에 문제적이다. 또한 ‘여 공무원’ ‘여경’과 같은 단어는 신체적 특징 때문에 여성이 해당 업무에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기에 문제적임에도 언론사들은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직업 앞에 성차별적인 접두사 女(여)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었다.

한국여성민우회<sup>3</sup>는 사건·사고 기사 중 기사 제목에 성별이나 이름이 표기된 기사를 살펴본 결과 여성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피의자(가해자)인 경우에도 기사 제목을 통해 성별과 이름이 더욱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YWCA는 사건 사고 기사뿐만이 아니라, 접두사 여(女)가 언론사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클릭 수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드러내고자 한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접두사 여(女)는 언론사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클릭 수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중앙일보의 <온라인에서 난리난 女 정채>의 기사의 경우 내용은 디지털 휴먼 개발 소식이었음에도 기사 제목은 자극적으로 ‘온라인에서 난리난 女 정채’ 라고 붙이면서 여성을 관심을 끌기 위한 소재로 사용했다. 파인애플 뉴스의 고군산대교에서 바다로 추락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는 <다리서 바다로 추락한 女 시신 발견, 옷차림 보나...>와 같은 제목으로 사고 소식과 전혀 무관한 여성의 옷차림을 ‘...’을 통해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으로 암시했다. 즉, 내용과 전혀 무관함에도 해당 제목들이 사용된 것은 ‘여’라는 단어를 선정주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7건의 성차별 사례는 묻는다. 오늘날 언론사에게 여성은 존중받는 인격체로 다뤄지고 있는가? 아니면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성적 대상일 뿐인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이후 언론사는 성범죄 보도윤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더 나아가 지금까지 언론사가 여성을 제목을 통해 어떻게 소비하고 전시해왔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sup>3</sup> 한국여성민우회(2019), [모니터 보고서] 기사제목의 성별표기, 얼마나 고민하고 있나요,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2448](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2448)

|       |  |
|-------|--|
| 모니터요원 |  |
| 언론사   |  |
| 매체명   |  |

중합의견

| 성평등적 내용              |  |
|----------------------|--|
| 날짜                   |  |
| 언론사                  |  |
| URL                  |  |
| 기사제목                 |  |
| 내용 및 이유<br>(해당장면/분석) |  |

| 성차별적 내용              |                    |                |           |        |    |
|----------------------|--------------------|----------------|-----------|--------|----|
|                      | 젠더(성별) 고정관념을<br>조장 | 성희롱·성폭력<br>정당화 | 외모에 대한 평가 | 성적 대상화 | 기타 |
| 날짜                   |                    |                |           |        |    |
| 언론사                  |                    |                |           |        |    |
| URL                  |                    |                |           |        |    |
| 기사제목                 |                    |                |           |        |    |
| 내용 및 이유<br>(해당장면/분석) |                    |                |           |        |    |

인터넷기사 모니터링 지표

| 성평등적 내용                                                                                                                                                                                                                                                                                                                                                                                                                                                                           |                                                                                                                                                                                                                                                                    |
|-----------------------------------------------------------------------------------------------------------------------------------------------------------------------------------------------------------------------------------------------------------------------------------------------------------------------------------------------------------------------------------------------------------------------------------------------------------------------------------|--------------------------------------------------------------------------------------------------------------------------------------------------------------------------------------------------------------------------------------------------------------------|
| <p><b>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li><li>-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회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li><li>-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li><li>-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li><li>-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li><li>- 다양한 가족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li><li>-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li></ul> |                                                                                                                                                                                                                                                                    |
| 성평등적 내용                                                                                                                                                                                                                                                                                                                                                                                                                                                                           |                                                                                                                                                                                                                                                                    |
|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여성성/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li><li>- 특정 역할에서 성비의 수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li><li>- 남성중심적 성규범(강간 통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는가?</li><li>-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li></ul> |
|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화해 그리고 있는가?</li><li>-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li><li>-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불필요하게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는가?</li></ul>                                                                        |
| 외모에 대한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가?</li><li>-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li></ul>                                                                                                                                          |
| 성적대상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카메라의 구도나 움직임이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전시하는가?</li><li>-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li></ul>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li><li>- 00녀와 같은 거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li></ul>                                                                  |

##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발행일 : 2020년 9월 발행처 : 서울YWCA 발행인 : 이유림 작성 : 강유민 김혜리 (서울YWCA 여성운동국) 저문 : 김수이(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출판기관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